

소설보다도 더 '감동적'인 비평서

레슬리 피들러의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

김성곤

서울대 교수·영문학

미국의 문예비평가 레슬리 피들러는,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단 한편의 책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면 나는 서슴없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집어들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곧 그 소설이 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인식과 인생을 뒤바꾸어놓은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피들러 이론의 근거를 탐색하다보면, 우리는 언제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조우하게 된다.

내 삶과 삶의 근간을 이룬 명저

그런데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그래서 단 한편의 책만을 갖고나가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서슴없이 레슬리 피들러(Leslie A. Fiedler)의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한편의 책이 더 허용된다면, 그 때에는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을 들고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권의 원서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읽은 비평서 중에서 가장 감명깊었던 책들이며, 내 삶과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중한 깨우침의 명저들이기 때문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은 마치 태평양을 처음 발견한 유럽인들의 경외와 놀람처럼 내 인식체계를 뒤바꾸어 놓았고 내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외국문학도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자신의 학문 방향을 재점검해보게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편견이 어떻게 하나의 지식체계와 진리로 굳어져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식이 권력과 결합했고, 또 어떻게 당대의 지식인들이 거기에 일조했는가를 서구 문학텍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명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놀라운 만한 비평서이다. 그뒤 나는 사이드가 원용했던 미셸 푸코의 저서들을 직접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이드의 예리한 비판의식과 놀라울 만한 혜안에 새삼 감탄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은 이미 국내에서도 번역 출판되었기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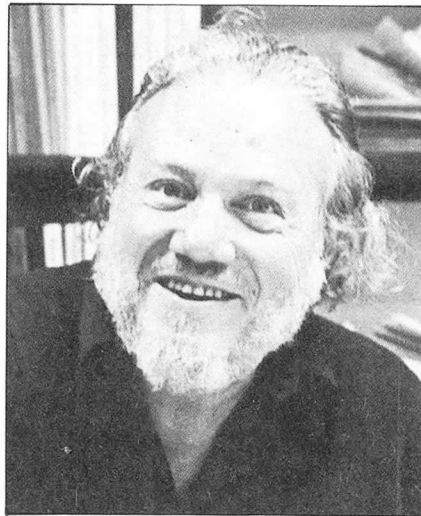
살아있는 문화비평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내게 ‘충격’을 준 책이었다면, 피들러의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은 내게 ‘감동’을 준 책이었다. 나는 한편의 비평서가 소설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편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피들러는 신비평가들의 도식적이고도 과학적인 문학비평을, 처음으로 피와 살을 가진 유연하고 살아 있는 문화비평으로 바꾸어놓은 이 시대의 희귀한 문예비평가였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작업은 ‘문학비평’이라는 장르를 소설만큼이나 문학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창작’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렸다. 그가 자신의 비평서의 제목에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사랑과 죽음’이라는 말을 당당히 집어넣은 것도 사실은 ‘비평은 곧 또 하나의 창작행위’라는 평소의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에서 피들러가 한 작업은 한국의 비평서들처럼 특정 작가론의 모음이 아니라, 19세기부터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작들의 분석을 통해 미국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원형적 심리’와 ‘문화적 특성’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위대한 미국소설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곧 ‘문명세계를 떠나 광야에서 방랑하는 백인 주인공들과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유색인들과의 우정’이었다.

피들러의 작품 분석은 미국 본격 단편소설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워싱턴 어빙의 「립 밴 윙클 *Rip Van Winkle*」로 부터 시작해 쿠퍼의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포우의 「아서 고든 핼의 모험 *The Narrative of Arthur Godon Pym of Nantucket*」, 멜빌의 「모비 딕 *Moby Dick*」, 그리고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으로 이어진다. 과연 미국인들의 원형적인 모습의 상징인 립 밴 윙클은 문명세계와 여자들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 한마리를 데리고 캐츠킬 산으로 들어간다. 대자연의 산속에서 그는 여자의 잔소리가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남성들의 천국을 발견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유색인은 아니지만 영국인들에게 뉴욕과 해상권을 빼앗기고 소외되어온 화란인 선원들을 만난다. 립 밴 윙클은 그들로부터 술을 얻어마신다. 이상한 것은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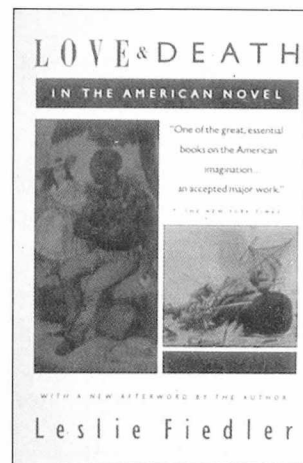


레슬리 피들러.

동안에도 그들이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말이 필요없다. 오직 우정을 돈독히 할 ‘술’이 필요할 뿐이다. 립 밴 윙클은 술에 취해서 산 속에 누워 잠을 잔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동안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동안 그를 지배하던 그의 아내는 죽고 미국을 지배하던 영국 역시 사라진다.

미국문학을 관통하는 ‘원형적 심리’ 추적

피들러는 이와 같은 원형적 패턴이 미국소설에 부단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컨대 집을 떠나 대평원 속에서 나누는 니티 범포와 인디언 칭카치국의 우정(쿠퍼의 「모히칸족의 최후」), 남극으로의 항해중 맺어지는 아서 고든 핼과 인디언 혼혈 디크피터스와와의 우정(포우의 「아서 고든 핼의 모험」), 포경선과 광활한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이슈마엘과 남태평양인 퀴켄의 우정(멜빌의 「모비 딕」), 그리고 미시시피강의 뗏목 위에서 맺어지는 허크와 흑인 도망노예 짐의 우정(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피들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아메리카를 이루고 있는 백인과 유색인종들간의 화해를 꿈꾸는 미국인들의 원형적 심리의 무의식적 표출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절박감으로 인해 미국소설에는 남녀간의 사랑보다는 남성들간의 사랑을 그린 소설들이 많다고 말한다. 1948년에 「파르티잔 리뷰」지에 발표되어 미국문단과 학계에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혁 편이여, 다시 뗏목으로 돌아와다오!」



라는 글에서 피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의 위대한 소설들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성간의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문학에서 우리는 그러한 소설들 속의 플라토닉 러브, 간통, 유혹, 강간, 혹은 기다란 회통에 익숙해진 감정의 세계를 떠나, 끝없는 강줄기를 따라 떠내려가는 뗏목 위에 불가능한 도피를 위해 나란히 누워 있는 어느 탈주노예와 순진한 소년을 만나게 되며 또한 불가능한 탐구를 위한 항해를 떠나기 직전, 갈색 피부 작살잡이의 문신 새긴 팔에 안겨 잠을 깨는 한 유랑선원을 만나게 된다.

신성한 자연—이것이야말로 바로 남성들의 신성한 결혼에 필요불가결한 배경이다. 서로 팔짱을 끼고 항해를 떠나는 이슈마엘과 퀴 , 평화스러운 미시시피강을 따라 헤엄치는 허크와 짐—여기에서 바로 홀로 방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꿈을 이루고, 흠없는 신부로서의 흑인이라는 관념은 바다로의 도피, 또는 바다로 통하는 거대한 강으로의 도망이라는 신화와 섞여진다. 물의 광대함은 사랑을 요구하는 고독의 의미를 밝혀준다. 또 물의 이상함은 인습을 부정하고 모든 형태의 사랑을 가능하게 해준다. 「뗏목 앞에서의 2년」, 「모비 딕」, 그리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우리는 언제나 ‘물’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이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본다. 쿠퍼의 소설에서는 같은

진정한 현대의 古典만을 출간합니다

현대문화론

반미학

할 포스터 편 / 윤호병 외 옮김 / 6,500원

이른바 반미학 혹은 포스트모던 이론의 전반적인 방향을 과감히 제시한 책. 1983년 발간된 이 책은 포스트모던의 아카데미즘화 내지는 대중화에 심대한 기여와 모든 엔솔러지의 모태가 됨.

현대성의 경험

마셜 버만 지음 / 윤호병 외 옮김 / 10,000원

이 책은 괴테와 보들레르, 마르크스에서부터 뉴욕시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근 2세기에 걸친 모더니즘의 역사를 특이한 시각으로 개관.

한국문화·사회의 상황과 후기現代

김태원 편 / 9,000원

이 책은 현재 유행하듯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문제에 준거하여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성격에 대한 탐구라는 다소 고전적인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학

와타나베 마모루 지음 / 이병용 옮김 / 8,000원

'미학'으로 알려진 예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광의의 '예술창조'를 둘러싼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TV 읽기

존 피스크 외 지음 / 이익성 외 옮김 / 5,500원

영어권 문화학의 선두주자인 존 피스크와 존 하트라는 통상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속에서 취급되었던 TV를 문화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TV를 현대 문화 생산의 한 요체로서 분석함.

바르트와 손탁 : 사진론

롤랑 바르트 · 수잔 손탁 지음 / 송숙자 옮김 / 8,000원

현대 문화 속에서 가장 불가해한 것은 사진이다. 서구의 대표적 지성인 롤랑 바르트와 수잔 손탁은 각기 사진의 존재론적, 현상학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사진을 설명한다.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안토니 이스트호프 지음 / 임상훈 옮김 / 7,500원

구조주의 이후 기존의 문화연구는 극단적으로 얘기해 위기와 죽음에 봉착하였다. 이 책은 그런 위기감에서부터 기존의 문화연구가 지닌 한계성을 극복해 범문화적 텍스트로 눈을 돌릴 것을 제안한다.

영화 속의 미국

마이클 우드 지음 / 시찬주 · 성미숙 옮김 / 6,500원

이 책은 영화에 대한 매우 지적이고 문화론적인 시각에 의해 할리우드 영화 속의 주제들을 살피고, 날카롭게 해부한다.

20세기 사진사

이토 도시히루 지음 / 이병용 옮김 / 8,500원

사진의 초기 발달에서부터 1980년대의 사진 예술운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개관한 사진사.

현대연극론

잔혹연극론

앙토넬 아르토 지음 / 박형섭 옮김 / 6,500원

20세기 서구 현대연극에 심대한 영향을 준 脫言語의 연극론. 동양의 원초적 연극자산을 토대로 한 새로운 연극적 개념을 제시하여 특히 포스트 모던 문화론의 한 기점이 됨.

스크린 디렉팅

에드워드 드미트릭 지음 / 편집부 옮김 / 6,000원

영화감독이 가져야만 하는 모든 기술적 및 예술적 기능과, 한편의 영화가 창조되어 나오는 모든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 쓰여졌다.

20세기 실험극

마거릿 크로이트 지음 / 송혜숙 옮김 / 8,500원

1960~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던 실험극의 사상과 미학, 그 운동의 모체를 치밀한 문체에 의해 분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현대희곡

어머니 외

B. 브레히트 지음 / 김미혜 옮김 / 6,000원

'어머니'는 막심 고리키의 소설을 각색한 것이고 '아르투르 우이의 저지 가능한 상승'은 히틀러의 운명을 풍자한 작품.

쟁기와 벌

손 오케이시 지음 / 김진식 옮김 / 5,000원

영국에 속박당한 아일랜드의 저항과 운명을 그린 오케이시의 대표작.

모르간 산을 내려가다가

아서 밀러 지음 / 김진식 옮김 / 5,500원

현대의 부부간에 잠대되어 있는 부조화와 부조리를 경쾌한 우화적 감각을 통해 그려보인다.

마로윳츠 햄릿 외

찰스 마로윳츠 외 지음 / 김윤철 옮김 / 6,500원

이 책에 수록된 다섯 편의 영미 희곡들은 모두 역사적·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다.

슬로언 씨를 위하여 외

조 오트 외 지음 / 한상철 옮김 / 6,500원

피터 셰퍼의 '탈출연습', 콜린 하킨스의 '해롤드와 모드', 조 오트의 '슬로언 씨를 위하여'가 실려 있다.

사랑은 시소타기 외

윌리엄 길스 외 지음 / 하태진 옮김 / 5,500원

'사랑은 시소타기' 외에도 거니의 '사랑의 편지들', 하트의 '화려한 침대'가 실려 있다.

탱고 외

므로체크 외 / 최용훈 옮김 / 6,500원

20세기 동유럽 극작가들이 개인과 사회, 개인과 문명의 갈등을 각각 독특한 언어와 풍자성, 비판성을 갖고 표출한 작품이다.

한권의 비평서가 소설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다.

피들러는 문학비평이란 곧 '우리의

삶이 가장 외로울 때의 기록이자,

도덕적 고뇌이며 지적 모험'이라고

말하며 비평이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깝게

밀착돼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의미의 다른 상징(즉 처녀림)이 제시된다. 처녀림의 꿈을 꾸었던 쿠퍼가 역시 세계 최초의 해양소설을 썼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피들러의 이러한 예리한 해안은 비단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블론디 *Blondie*」 같은 만화나 「흑과 백 *The Defiant Ones*」, 「빠꾸기 등지 위를 날아간 새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스타 트랙 *Star Trek*」 같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로까지 확대됨으로써, 그와 같은 미국인들의 원형적 꿈이 지금도 면면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피들러는 미국인들의 그와 같은 꿈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만 상상 속에서만 추구되고 이루어지는 깨지기 쉬운 낭만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라고 피들러는 말한다. 바로 그것이 작가들의 사명이자, 비평가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작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창작과 비평은 하나로 합일된다.

피들러는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해 옹의 심리 분석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전자로부터는 의식/무의식, 아니마/새도우, 그리고 원형이론을, 후자로부터는 소외계층간의 화해와, 보다 더 나은 세계 추구 이론을 빌어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두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반 융적인 융 학자 anti-Jungian Jungian', 그리고 '반 마르크스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자 anti-Marxist

Marxist'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을 쓰게 된 동기를 피들러는 자신이 "다섯살과 일곱살 먹은 두 아들에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깨달은 바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 또한 비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된다. 그는 또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을 헌정한 은사 윌리엄 엘러리 레너드(William Ellery Leonard)를 기억하며, "그는 내게 문학이란 학교와 도서관에서 배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내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피들러는 문학비평이란 곧 "우리의 삶이 가장 외로울 때의 기록이자 도덕적 고뇌이며, 지적 모험이다"라고 말한다.

유독 한국에서만 번역되지 않은 세계적 저서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은 원래 1960년에 스타인 앤드 데이(Stein and Day)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화란어 등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동양에서도 아랍어, 인도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에도 이미 번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책이 유독 한국에서만 아직도 번역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1992년에 미국 뉴욕의 반담, 더블데이, 델 출판사의 「앵커북 Anchor Book」으로 재출간되어 미국 문단과 학계에 '다시 피들러로 돌아가자! (Back to Fiedler!)'라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그러한 최근 움직임은 우리의 현실이나 삶과는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으며 역사적·사회적 '컨텍스트'는 무시한 채 문학비평을 단지 '텍스트 속의 관념적 언어'로만 축소시켜온 현학적이고 유럽지향적인 상아탑 이론들에 대한 피들러의 준엄한 책망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서 출판 현대미학사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전화 : 766 - 3527(편) / 745 - 9527(영) 팩스 : 745 - 3940